

전남도, 확진자·접촉자 정보 못받아 '깜깜이'

광주 확진자 2명 발생까지 광주시·질본 정보 공유 안해 16번 확진자·남편 격리 사실 광양·나주보건소 보고로 알아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광주 첫 확진자(16번) 발생 이후 5일까지 제대로 된 정보 공유를 제대로 안 되면서 전남도가 자체 지역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정보, 접촉자 등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유되지 못하면서 지자체 단위에서의 선제적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병욱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5일 오전 11시 신종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 광주시 모두 확진자의 동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전남도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국장은 "4일 광주 첫 확진자(16번 환자)가 발생하고, 오늘 오전 18번 확진자(딸) 발표가 났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질병관리본부나 광주시 모두 전남도에 어떠한 업무연락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16번 확진자가 무안공항을 거쳐 입국한 것이 밝혀지면서 전남도민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 주재 화상 회의,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 등의 정보로 자체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환자 가족 회사, 환자 가족의 보건소 신고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 형편이다. 16번 환자 확진 과정에서도 전남도는 판정 전날인 3일 광양보건소로부터 "16번 확진자 남편이 회

사 출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 상태에 놓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만이 아니라 광양보건소 역시 환자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이런 사실을 전화로 직접 알려줄 때까지 아무 것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나주보건소도 16번 확진자 어머니(산포면 거주)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내 딸이 16번 확진자'라고 밝히면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접촉자 파악과 격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질병관리본부나 광주시 모두 확진 판정 이후까지 환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전남도 관계자는 "16번 환자가 오한 등 증세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25일(설날)이었고, 이때 식사를 함께 한 오빠, 율계언니가 나주 산포에 거주한다"며 "전남도 입장에서 정부의 정보 공개와 공유가 더 빨라져야 선제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소는 16번 환자 모친, 오빠, 율계언니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16번 환자 오빠와 율계언니가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난 설날 점심과 저녁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자칫 확진 판정이 내려질까 우려하고 있다. 확진자의 모친은 태국 여행을 함께 다녀왔으나 환자 증상 발생 이후 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감염 우려는 낮다는 판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일반환자

5일 오후 광주 21세기병원에 격리되어 있던 일반환자들이 새롭게 격리장소로 지정된 광주시소방학교 기숙사에 도착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기자 노트

감염자 이동정보 비공개가 능사인가



박진표
정치부 차장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발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불안이 없도록 정보가 파악되면 즉시 공개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시는 이날 오후 3시께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지침에 따라 일절 말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종일 맘카페와 SNS 등은 '확진자가 모 대형마트에 근무한다', '어디를 오고 갔다', '모 대형 마트가 폐쇄됐다' 등 각종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질본과 광주시에서 '시민 혼란'을 걱정한(?)해 정보를 통제할 사이, 시민들은 '가짜뉴스'를 '진짜뉴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막연한 불안감은 공포라는 괴물로 변질됐다.

광주시는 이날 이 같은 시민의 고통은 뒷전인 채 내일(5일) 오후엔 질본에서 구체적 동선을 파악해 공개할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러나 5일 오전에 확진자의 20대 딸까지 추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혼란은 더 커졌다. 이날 오후 28시간여만에 질본에서 발표한 확진자의 동선도 전날 유출된 광산구 내부보고 문건 내용을 넘지 못했다.

이용섭 시장도 답답했던지 이날 오전 담당 간부에게 "시민이 불안해 하면

안된다.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지침이 어려울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적으로 이날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에선 안승남 구리시장이 직접 나서 확진자 동선을 모두 공개했다. 1월 24일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당일부터 동선이 시간과 함께 업소명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구리시장은 광주시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질본의 지침까지 어기고, 시민의 알권리를 선택한 것이다.

질본은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지침을 이유로 동선 공개 등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 광주시민은 또 가짜뉴스와 막연한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바이러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이는 없다. 확진자의 동선이 자제히 공개된다면 광주시민은 그 장소를 아예 피하거나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막연한 공포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

광주시의 한 보건 관련 공무원도 "우리도 시민에게 감염정보를 1초라도 빨리 공개하는데 동의하지만, 공무원이 징계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질본지침을 어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200여년 전에도 이 같은 공개는 시대적 화두였던 모양이다. 독일 철학자 칸트(1724-1804)는 "공개한 만큼 공정성과 공공성은 커지기 마련이다"며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난해 의료급여 58억 절감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 1천여명 적정 진료유도 맞춤형 사례관리

광주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외래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58억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지역 의료급여대상자 6만3430명 중 질병에 비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고위험군 122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자치구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의 맞춤형 사례관리로 통해 적정 진료를 받도록 안내했다.

사례관리 결과 2018년 130만6000여일에 달하던 해당 고위험군 대상자들의 연간 급여일수가 2019년에는 120만8000여일로 9만8000여일 줄었다. 연간 178억8400만원에 달하던 의료

여비용도 2019년에는 121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어 1인당 평균 연간 의료급여 비용이 1465만원에서 991만원으로 474만원(32.3%) 감소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구성된 의료급여 관리사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약물과다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입원 사례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면서 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광주시에서는 25명의 시·구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신규·장기 입원자나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해 중복처방, 약물과다, 의료쇼핑 등의 행위를 막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

이상 기후 탓...전남 올 김생산 대폭 감소

3만6000t 감소 12만8000t

이상 기후로 인해 올해 김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남의 효자 품목인 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5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은 같은 기간(지난 1월 30일 기준) 생산량 16만4000t과 비교해 3만6000t이 감소한 12만8000t에 그쳤다.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김 양식 초기인 지난 가을 태풍으로 해상 채묘 시설이 유실됨에 따라 양식시설 설치가 늦어지고, 겨울철 바다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0.3~2.1도 높게 유지되면서 김 염체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기후가 계속될 경우 김 생산의 메카인 전남도내 어민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 2018년 김 생산액이 4845억원을 기록, 최초로 4800

억원을 넘어선 바 있다. 또 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전남 수산물 가운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지난 4일 고흥, 진도, 해남, 신안 등 8개 지역 김 양식 어업인과 국립수산과학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태풍, 수온, 갯벌 등 급변하는 여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김 신제품 개발, 김 육상채묘와 병동방 시설 확대 등 김 양식 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성장 방안들이 논의됐다.

박준택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겨울철 이상수온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여장 관측시스템을 이용한 예보체계를 강화하고 김 양식 여장관리를 위해 세밀하고 적극적인 기술 지도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